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5년새 6배 증가

2012년 116건→2016년 760건... 광주 240건 적발
주행거리·사고 이력 등 속여 판매... 제도개선 필요

A씨는 C브랜드 중고 차를 사면서 중고 자동차 판매자로부터 차량 주행거리는 5만4010km라고 들었다. 하지만 이후 서비스센터를 통해 알아보니 2011년 정비이력에 주행거리가 7만5000km였다. A씨는 중고차 매매 사업자에게 주행거리 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지난 5년간 광주에서만 240건의 불법이 적발되는 등 중고차 불법매매 건수가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매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로 적발된 건수는 총 20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116건이었던 불법 매매 적발 건수는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 2016년 760건으로 6.5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고, 2017년 7월 기준 35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98건(2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377건(18.3%), 광주 240건(11.7%), 대전 194건(9.6%)이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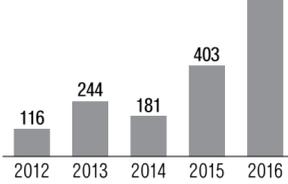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용표지 부착 미준수, 등록번호판 보관대장 작성·비치 미준수 등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81건(47.7%)으로 가장 많았다. 매수인에게 성능점검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가 184건(9.0%)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보증보험 미가입이 153건(7.4%)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거래 소비자 피해도 2158건에 달했다. 피해 사례 중에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71.6%로 가장 많았다.

작년 한 해 중고차 거래는 약 370만대가 이뤄졌으며 시장 규모는 26조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주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 <단위:건>



지역별 중고차 불법매매 건수 <단위:건>



행거리 2000km 이내면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상태 점검자가 이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

식이 없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힘든 구조"라며 "처음부터 차량검사를 엄격히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문제 발생 시 차량 상태 입증 책임은 매매업자나 검사자로 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최근 5년 사이 중고차 불법매매 건수가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수입차 벤츠 독주시대

9월 5606대 판매 4개월 연속 1위
BMW 520d는 베스트셀링 모델

벤츠가 지난 9월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하며 4개월째 '독주'했다. 하지만 가장 많이 팔린 모델 순위에서는 BMW 520d가 지난 8월 벤츠 E클래스를 밀어내고 왕좌에 오른 뒤 두 달 연속 선두를 지켰다.

1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달 새로 등록된 수입차는 모두 2만234대로 8월보다 15.3%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20.6% 많은 규모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각 브랜드의 적극적 마케팅과 일부 브랜드의 신차효과 등에 힘입어 수입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별로는 벤츠가 5606대를 팔아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이어 BMW(5299대)·랜드로버(1323대)·렉서스(1128

대)·혼다(1022대)·미니(933대)·포드(832대)·크라이슬러(767대)·토요타(755대)·닛산(541대)·볼보(466대)·제규어(414대)·

푸조(306대) 등의 순이었다. 특히 랜드로버는 '디스커버리 스포츠(Discovery Sport) TD4'(판매량 600대)



벤츠 E200

를 앞세워 불과 한 달 사이 7위에서 3위로 네 계단이나 뛰었다.

9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8월에 이어 BMW 520d(1382대)였다. BMW 520d x-Drive(886대)와 벤츠 E200(854대)이 뒤를 이었다.

연료별로 나눠보면 디젤차 점유율(46.7%)이 가솔린차(44.3%)를 두 달 연속 앞질렀다. 최근 10%를 웃돌던 하이브리드차(엔진+전기모터)의 비중은 8.6%(1742대)로 떨어졌고, 전기차(93대)는 0.5%에 머물렀다.

국가별로는 독일 등 유럽 브랜드 비중이 72.8%에 이르렀고, 지난해 21%까지 뛰어던 일본 차 비중은 18.3%로 낮아졌다. 미국 브랜드(9%)는 수입차 10대 중 1대꼴이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아자동차는 오래된 고객 차량을 리모델링해 고객이 원하는 차량으로 변신시켜주는 '카 리모델링'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오래된 차량 고객 원하는 대로 고쳐준다

'카 리모델링' 프로그램 진행

기아차가 고객의 오래된 차량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고쳐주는 '카 리모델링(개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기아차 회원제 '기아레드멤버스' 회원은 누구나 이달 31일까지 기아레드멤버스 홈페이지(http://red.kia.com)를 통해 리모델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아차는 접수된 사연 가운데 자동차에 애정이 많은 고객, 사회공헌 단체 등을 위주로 6건을 골라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차주는 ▲스타일 업(Style Up) ▲드레스 업(Dress Up) ▲라이프 업(Life Up) ▲세이프 업(Safe Up) 등 4가지 리모델링 패키지(꾸러미)를 선택

할 수 있다.

스타일업 패키지는 차량 외관과 휠 등, 드레스업 패키지는 리어 스포일러와 브레이크 캘리퍼 등, 라이프업 패키지는 레저와 관련된 루프 박스(지붕 위 수납박스)와 옆 차량 커튼 등에 초점을 맞춰 개조된다. 세이프업 패키지의 경우 전방 감지 센서와 광폭 아웃사이드 미러, 음극

키트 등 안전 사양들이 추가된다. 모든 패키지에는 공통으로 세차, 광택·코팅, 핸들 커버, 옆·뒤 차창 섀팅,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등도 포함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해로 다섯 번째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기아레드멤버스 회원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난 12일 개최한 '신제품 설명회'에 전시된 신제품 '윈터크래프트 WP72'(왼쪽)와 '윈터크래프트 WS71'.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겨울용 타이어 신제품 출시

윈터크래프트 WP72 등 2종

금호타이어가 겨울용 타이어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 '윈터크래프트 WP72', '윈터크래프트 WS71'은 금호타이어의 대표적 겨울용 타이어인 윈터크래프트 KW27, 아이젠 RV KC15의 후속 제품이다. 기존 제품의 겨울철 안전 성능 향상은 물론 디자인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다.

윈터크래프트 WP72는 프리미엄 겨울용 타이어로 고급 세단을 위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겨울용 타이어에도 저소음, 컴포트 성능을 향상시켜 승차감과

주행안정성을 높였다.

SUV 전용 제품인 윈터크래프트 WS71은 SUV에 특화된 신규 비드 기술을 적용해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비대칭 패턴 설계를 통해 눈길, 빙판길 노면에서의 제동력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신제품 2종의 측면부인 사이드월에 눈 내리는 풍경과 눈꽃 결정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적용해 겨울용 타이어로서의 정체성을 살리는 한편 윈터크래프트 특유의 감성을 담았다. 겨울용 타이어는 4mm부터 윈터 기능이 저하되므로 금호타이어는 신제품 2종에 안전마모 아이콘을 적용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히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10평
- 2012년 신축, 전망좋음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12억
- 매매 - 7억 8000만원
- 용자 3억 3000만원 포함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목포에서 50분 (쾌속선)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장기투자 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2억+부동산과 교환가능)

나주, ㅅㅅ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조정가)

"급 매"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주인직매 010-3605-5000